

\$



○ APR, Hydro의 태국 가리 프로젝트 역할 승인

Asia Pacific Resources Ltd(APR)는 Norsk Hydro가 태국 동북부에서 APR이 추진하고 있는 2백만톤의 Somboon 가리 프로젝트에 소수의 주식을 갖겠다는 약속을 승인 하였으며, Hydro는 또한 염화가리 전 생산품을 판매하는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Hydro의 참여 확약은 APR의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었는데 그것은 가리 프로젝트를 위하여 재정확보와 허가취득의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APR은 1999년 5월에 Hydro와 마켓팅 파트너로서 약속을 체결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Hydro가 비료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재검토 하였기 때문에 불확실한 기간을 경과해야만 했다. 지난해 APR은 두번 째 개발 파트너인 Bechtel을 확보하였다.

3개 파트너사이에 참여조건을 놓고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참여사가 있는지도 찾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부채 청산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5월 HypoVereinsbank가 6억달러에 이르는 이 프로젝트의 부채 청산 지원을 위해서 자문사 겸 주된 조정사로 지정되었다.

한편 APR은 그 자회사인 Asia Pacific Potash Co.(APPC) 이사회를 보강시켜 두명의 이사를 추가로 임명하였다.

< ASIAFAB SPRING 2001 >

○ 호주의 PRCL, 암모니아/요소 판매 계약 체결

호주의 Plenty River Corp. Ltd(PRCL)과 독일 무역회사인 Helm Dungemittel은 서부 호주 Burrup 반도에서 개발 계획이 진행 되고 있는 Plenty River의 암모니아/요소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에 따라 Helm은 15년간 그 래늘 요소 760,000톤과 암모니아 190,000톤을 사들이게 될 것이다. 이 계약은 제품 판매권을

\$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주요 회사가 후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Plenty River와 Thiese가 질산암모늄 공장을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Helm의 보장된 요소 구매는 380,000톤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암모니아 매입 의무도 마찬가지로 95,000톤 이하로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Helm의 그래뉼 요소 및 암모니아 매입가격 책정은 예상되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에 바탕을 둔다.

Helm은 대부분의 이 제품을 호주 시장내에서 판매할 것인데 이곳에서의 판매는 이나라의 수입 물자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호주는 약 120만톤의 그래뉼 요소를 수입하고 있는데 총 수입량은 2004년까지 14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 호주로 이나라로 수입된 전체 요소의 약 35%를 소비한다.

계약에 따라 Helm은 국내 마켓팅 사무소와 호주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사무소는 Melbourne이나 Perth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Plenty River 프로젝트는 궤도에 다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1월 인도 회사 Chambal Fertilizers & Chemicals는 1999년 3월에 PRCL과 서명했던 양해각서를 취소하였다. 협약을 종료시키기로 한 결정은 쌍무적인 것이라고 PRCL은 말했다.

조건에 따라 PRCL과 Chambal은 은행융자 가능 여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을 것이다. 이 조사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면 인도회사는 주식 지분 절반을 갖는 파트너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PRCL은 대안의 잠재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및 호주회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PRCL은 또한 암모니아와 요소의 저장, 요소 콘베이어, 암모니아 파이프라인 및 하역시설을 위한 있음직한 Build, Own, Operate, Transfer(BOOT) 장치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재무 구성과 주식 조정의 기타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PRCL는 2004년초에 암모니아와 요소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 ASIAFAB SPRING 2001 >

//

○ KCF, 복합비료 생산 개시

Kemira Compound Fertilizer(Zhan-Jiang) Co.Ltd(KCF)는 지난 12월초에 시험가동을 완료한 후에 생산을 개시하였다. KCF는 Kemira Agro 그리고 핀란드의 Finnfund 그리고 Guangdong성 Zhanjiang시에 있는 중국회사인 Guangdong Zhanhua Enterprise Group Ltd(GZEG) 사이의 합작사업체이다.

KCF 공장은 NPKs 200,000톤의 설계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생산은 GZEG로부터 임차한 인산 33,000분톤의 생산용량 공장으로부터 공급되는 인산에 일부 균거를 두고 Yunnan 성에서 나오는 제품을 추가로 보충하고 있다.

KCF는 GZEG 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국의 공급처로부터 인광석 150,000톤을 사들이고 Hunnan성으로부터 암모니아 약 20,000톤을 더 사들일 것이다. KCF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100,000톤 공장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는 Kemira Engineering이 자체 기술을 사용하여 시행한다.

이 회사는 특수비료 공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데 특히 광동성과 해남도의 바이어들을 위하여 황산가리에 기초를 둔 12-10-24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또한 15-15-15를 포함한 상품 등급의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두 등급의 일부 물량은 베트남, 말레이지아, 태국, 베마와 같은 이웃 시장에 수출될 것이다.

< ASIAFAB SPRING 2001 >

○ 인도네시아, 투자 풍토 개선

비료부문에 대한 투자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스 가격을 \$ 2-3/mmBtu에서 약 \$ 1.60/mmBtu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 비료회사들은 침체된 프로젝트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 1.30/mmBtu까지 더 인하할 계획이다.

이러한 회사중에는 PT Pupuk Kalimantan Timur(Kaltim)이 있는데 이회사는 Bontang공장에서 생산능력을 암모니아 1,000t/d, 요소 1,725t/d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한 메타놀과 Acetic산 생산능력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국영 Pt Pupuk Sriwidjaja(PUSRI)는 또한 개스에 바탕을 둔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회사

~~~~~

는 Palembang 공장단지에서 4개소의 암모니아/요소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총 160조 입방피트의 개스 보유량이 있는데 관련자들은 2005년까지 국내 개스 수요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스가격을 더 경쟁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개스 수출을 늘리고 부가가치세를 조정하고 수출 위주의 비료 및 기타 화학제품 생산을 증가시키기를 희망한다.

요코하마 지역회의(2000년 12월 4-7일)에서 연설하면서 PT Asean Aceh Fertilizer 사장이며, 인도네시아 비료생산업협회 공동 회장인 Zaenal Soedjais 박사는 생산과 소비 상황을 평가하였다.

기술적인 문제로 1999년에 590만톤으로 하락한 요소 생산량은 2000년에는 64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것은 91%의 평균 생산능력 이용율을 말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비료 소비는 1998년에 정점에 달했던 요소 470만톤에 아직 뒤떨어지고 있다. 2000년에는 총 소비량이 요소 41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1998년 12월에 비료 보조금이 철폐됨에 따라 소비도 감소하였다.

지난해에는 두 신설공장이 가동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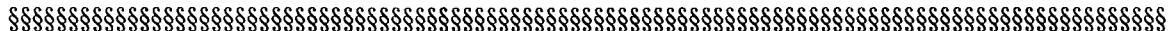
- Bontang 소재 660,000톤/년 Kaltim Pasifik Amoniak 암모니아 공장이 2000년 4월에 생산을 개시하였다. 생산품 전량은 수출된다.
- Petrokimia Gresik 300,000톤/년 NPK 공장이 2000년 10월에 생산을 개시하였다.

아래 공장들은 현재 건설 중이다.

- Lhokseumawe에 건설되는 PT Pupuk Iskander Muda(PIM) II 1,200t/d 암모니아 및 1,725t/d 요소공장이 2004년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 Bontang에 위치한 Kaltim의 암모니아/요소 공장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다.

또한 계획중에 있는 것은 Cikampek에 세워질 PT Pupuk Kujang 1B 570,000톤 요소 프로젝트와 생산능력을 650,000톤/년에서 975,000톤/년으로 50%까지 끌어올리는 Lhokseumave 소재 PT Asean Aceh Fertilizer 공장의 개조 공사이다.

< ASIAFAB SPRING 2001 >



## ○ 베트남, Phu My 프로젝트 개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남부 Baria-Vung Tau성 Phu My에서 시행 계획인 800,000 톤/년 요소 프로젝트와 관련, 국영 석유 및 개스회사인 Petro-Vietnam이 다시 제출한 타당성 조사를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타당성 조사는 전에 이태리의 Technip이 Samsung Engineering, Hyundai Heavy Industries가 공동으로 Project Development India Ltd(PDIL), Mitsubishi Heavy Industries 및 Snamprogetti SpA와 협력하여 제출한 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Cuu Long Basin에 있는 White Tiger Gas전으로부터 공급되는 개스를 이용한다. Phu My 프로젝트는 장기간의 계획 기간을 거쳤는데 원래 이 프로젝트는 Agrium, BP Amoco, Statoil, Tomen Corp., Mitsui & Co. 그리고 베트남의 Petro-Vietnam, Vinachem, Vigecam 사이의 합작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Petro Vietnam이 해외 파트너들과 개스 공급가격 문제를 최종 마무리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 ASIAFAB SPRING 2001 >

## ○ 중국의 QSLIG, 자체적으로 가리 프로젝트 추진

중국의 Qinghai Salt Lake Industry Group(QSLIG)은 어떤 외국 파트너의 참여없이 300,000톤/년의 가리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스라엘의 Dead Sea Works(DSW)는 소금물에서 가리를 만드는 프로젝트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합작 파트너로 연결되었었고 1992년에 이스라엘과 중국이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수정된 프로젝트는 중국중부 Qaidam Basin의 소금물 매장지로부터 800,000톤/년의 가리를 생산하려는 처음 계획했던 합작 계획에서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약 Rmb 7억3천8백만(\$8천9백만)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Qinghai Salt Lake Industry Group이 Rmb 1억8천3백만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는 Qinghai 지방정부와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에서 각각 Rmb 8천만과 Rmb 4억7천5백만의 융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이것은 전에 추정했던 \$ 4억8천6백만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다. 이 프로젝트는 완공하는

////////////////////////////////////////////////////////////////////////

데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건설공사는 Qinghai성 Geermu시 근처 Chaehan Salt Lake 단지의 82m<sup>2</sup> 현장에서 시작되었다.

< ASIAFAB SPRING 2001 >

## ○ 중국의 DAP, 200만톤 수입 예상

중국의 2001년 DAP 수입 배당 제한 범위는 200만톤 정도이고, 전년보다 1/2이 줄어든 상태로 급감될 전망이다. 업계측의 관측에 따르면 중국의 DAP 수입량은 대폭 감소 과정으로 들어가는 상태라고 한다. 또한 이 200만톤 수입 제한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수입의 움직임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의 2001년 DAP 수입 배당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200만톤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에 보도되었는데 업계측의 최근 정보로는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전년보다 1/2 이상의 막대한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감소원인으로는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일부 관측통에서는 국산품이 증가하는 데다 외화의 유출을 자제하고, 재고가 충분한 것 등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정은 아무래도 불분명하고 요컨대 앞으로의 수입 동향으로 실체가 판명되리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중국은 요소의 제3국 제품의 매입으로 절정기에는 년간 800만톤, 평상시에는 500-600만톤의 거대 수입국이었으나, 지금은 요소의 수출국이 되어 년간 80만톤~100만톤으로 수출에 변화를 주고 있다.

DAP의 거대 수입국이 요소의 전철을 밟진 않겠지만, 수입 배당 감소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앞으로의 DAP 국제 수급 시장과 동시에 장래의 향방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중요시될 것임은 확실하다.

금년 2001년에 이어 2002~2003년을 향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DAP 뿐만아니라 해외의 화학비료를 수입할 것이며, 반대로 수출동향에도 주목을 요하게 된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3월 29일 >

\$\$\$\$\$\$\$\$\$\$\$\$\$\$\$\$\$\$\$\$\$\$\$\$\$\$\$\$\$\$\$\$\$\$\$\$\$\$\$\$\$\$\$\$\$\$\$\$\$\$\$\$\$\$\$\$\$\$\$\$\$\$\$\$\$\$\$\$

## ○ 미국의 DAP, 재고량 감소 진행

업계측의 미국 정보에 의하면 2월말 현재 미국의 DAP 재고는 851,000톤, MAP는 636,000톤으로 합계 1,487,000톤으로 되어 있다. 전년대비로는 DAP 28%가 감소(전월대비 12% 감소), MAP 48% 증가(전월대비 17% 증가)하여 계 8% 감소(전월대비 1% 감소)로 나타났다. DAP가 감소된 데 반하여 MAP가 증가하고 있는 구도로 합계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면에서 보면 2월은 DAP가 전년대비 26% 감소한 736,000톤(전월대비 16% 감소), MAP 6% 증가한 430,000톤(전월대비 8% 증가)이며 합계는 17%가 감소한 1,166,000톤(전월대비 9% 감소)으로 IMC 등 주요 메이커의 감산조정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MAP는 재고와 생산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DAP는 메이커의 생산 감산으로 재고가 상당히 줄어들고 가격도 회복되어 안정화가 계속되어 가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3월 27일 >

## ○ 미국 인산 메이커, 춘비에 따른 공장 재개 여부

미국의 관련 메이커들이 중지했던 인산액과 인산비료(DAP 등)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소문이 들리는 것 같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관련 메이커들이 소문을 부정하고 있지만 신빙성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IMC 글로벌과 Cargill, PCS 등 인산비료 생산 메이커들은 작년 초가을 이후부터 올 신년에 걸쳐 수급 시장대책의 일환으로 인산비료 등에 대해 대폭적인 감산에 들어가서 그 생산은 50% 감산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메이커는 최근 일부 공장에서 생산 재개의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고 하여 춘비의 수요 상승에 대처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재개설에 대해서는 「일부 메이커는 재개는 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한다고 하며, 감산은 중지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춘비를 맞이하여 실제로 어떻게 될지 일본업계에서도 미국 인산 비료의 수급이나 가격

############################################################################

문제와 관련하여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3월 22일 >

## ○ 인도네시아의 요소 생산중지와 관련한 국제 시황

인도네시아의 요소 메이커인 아세안·아체와 푸푸쿠·에스칸달무다는 천연가스의 생산이 중지되어 원료의 입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요소의 생산도 부득이하게 중지되었고 최근 요소 국제시황도 약세 경향에서 반등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고 관측하고 있는데, 업계 측에 따르면 요소 시황의 반전 상승의 동향은 아직 없고 이 배경에는 이들 생산 정지가 공장이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어서 언젠가는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들 요소의 생산 정지는 원료인 천연가스 공급을 받지 못한데에 따른 것이지 가스 설비와 요소공장에 피해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특별주의 민족 운동에 따르는 혼란에 대해서는 군대를 출동시켜서라도 생산 기업의 안전을 도모할 방침으로 가스와 요소 모두가 생산 공급이 장기간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스와 요소 생산은 동정 살피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요소 생산 정지에 대해서는 메이커의 약정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사태도 전망된다는 관측을 보였는데, 이미 아세안·아체는 관련 고객에 대하여 이 선언을 발표하고 문제가 해소 될 때까지 공급의 안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 같다.

에스칸달무다는 아직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역시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3월 16일 >

♣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출길 수 있다.

< 알렉상드루 마 >